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북부신문 7면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특위 관내 동장들과 간담회 가져

CCTV확대설치,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통한 과태료 처벌 등 논의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이영심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 구본승 위원, 김영준 위원, 이정식 위원)는 지난 26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북구 13개 동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각 동의 대책 마련 현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장동우 부의장이 참석하여 격려했으며, 강북구 13개동 동장과 청소행정과장, 도시정결추진팀장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각 동장들은 동별 무단투기 관리지역 관리 현황과 그 동안 시행해온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무단투기 근절 방법 등을 발표하여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에서는 각 동에서 나온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수렴하여, 주민 의식 변화를 위한 대면 홍보, CCTV 확대설치,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통한 과태료 처벌, 골목길 벽화 그리기, 다세대·단독 가구 맞춤형 재활용 분리수거, 인력 추



강북구의회 무단투기대책특위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13개 동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가 배치 등의 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아울러 공공근로 공백기를 대비한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시간여에 걸친 간담회를 마무리한 특위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검토된 사항 외에 각 동에 대한 현장 활동을 통해 동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맞춤형 무단투기 근절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영심 위원장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구청 담당부서를 비롯해 청소업체와 각 동주민센터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된 무단투기 근절 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청결한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신문 5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위해 13개동 한자리에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위, 13개 동장과 함께 대책 논의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이영심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 구본승·김영준·이정식 위원)는 지난 11월26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북구 13개 동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각 동의 대책 마련 현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장동우 부의장이 참석하여 격려했으며, 강북구 13개동 동장과 청소행정과장, 도시정결추진팀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동장들은 동별 무단투기 관리지역 관리 현황과 그 동안 시행해온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무단투기 근절 방법 등을 발표하여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에서는 각 동에서 나온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수렴하여, 주민 의식 변화를 위한 대면 홍보, CCTV 확대설치,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통한 과태료 처벌, 골목길 벽화 그리기, 다세대·단독 가구 맞춤형 재활용 분리수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11월26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북구 13개 동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 인력 추가 배치 등의 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아울러 공공근로 공백기를 대비한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시간여에 걸친 간담회를 마무리한 특위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검토된 사항 외에 각 동에 대한 현장 활동을 통해 동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맞춤형 무단투기 근절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심 위원장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구청 담당부서를 비롯해 청소업체와 각 동주민센터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된 무단투기 근절 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청결한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위해 13개 동 한자리에...'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이영심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 구본승 위원, 김영준 위원, 이정식 위원)는 지난 달 26일 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북구 13개 동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각 동의 대책 마련 현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장동우 부의장이 참석하여 격려했으며, 강북구 13개동 동장과 청소행정과장, 도시청결추진팀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동장들은 동별 무단투기 관리지역 관리 현황과 그 동안 시행해온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무단투기 근절 방법 등을 발표하여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특위에서는 각 동에서 나온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수렴해 주민 의식 변화를 위한 대면 홍보, CCTV 확대설치,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통한 과태료 처벌, 골목길 벽화 그리기, 다세대·단독 가구 맞춤형 재활용 분리수거, 인력 추가 배치 등의 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아울러 공공근로 공백기를 대비한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시간여에 걸친 간담회를 마무리한 특위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검토된 사항 외에 각 동에 대한 현장 활동을 통해 동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맞춤형 무단투기 근절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심 위원장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구청 담당부서를 비롯해 청소업체와 각 동주민센터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된 무단투기 근절 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청결한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

쓰레기무단투기대책위, 집행부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위해 13개 동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 논의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이영심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 구본승 위원, 김영준 위원, 이정식 위원)는 지난 11월 26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북구 13개 동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각 동의 대책 마련 현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장동우 부의장이 참석하여 격려했으며, 강북구 13개동 동장과 청소행정과장, 도시청결추진팀장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각 동장들은 동별 무단투기 관리지역 관리 현황과 그 동안 시행해온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무단투기 근절 방법 등을 발표하여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에서는 각 동에서 나온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수렴하여, 주민 의식 변화를 위한 대면 홍보, CCTV 확대설치,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통한 과태료 처벌, 골목길 벽화 그리기, 다세대·단독 가구 맞춤형 재활용 분리수거, 인력 추가 배치 등의 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아울러 공공근로 공백기를 대비한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시간여에 걸친 간담회를 마무리한 특위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검토된 사항 외에 각 동에 대한 현장 활동을 통해 동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맞춤형



▲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가 13개 동장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무단투기 근절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영심 위원장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구청 담당부서를 비롯해 청소업체와 각 동주민센터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된 무단투기 근절 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청결한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